

보험사, 건설업 대출 관리 본격화

주택시장 둔화 우려와 해외사업 수 익성 악화 등으로 건설사 재무구조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자 은행에 이어 보험사들도 건설업 대출채권 관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설업 대상 대출에 적극 나섰던 보험사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큰 대출채권 규모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용위험 가능성이 있는 건설업의 대출규모 파악을 마친 6개 보험사(삼성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동부화재,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의 건설업 대상 신용위험 합산 대출잔액은 올 3분기 기준 5조27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3조8271억원 대비 약 1조45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주택시장 호조에 따라 건설업 대출이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매월 1500억원씩 신용위험 가능성이 있는 대출이 이뤄진 셈이다.

6개 보험사 중 신용위험 대출잔액이 가장 많이 불어난 곳은 삼성생명이다. 작년 말 1조3859억원이었던 삼성생명의 대출잔액은 지난 9월 2조4810억원으로 급증했다. 1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어 같은 기간 교보생명의 증가폭이 2993억원(2665억원→4658억원)으로 조사됐으며 NH농협손보 1059억원(1379억원→2438억원), 동부화재 280억원(4240억원→452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양생명 잔액은 600억원가량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 신용위험 큰 대출채권 파악

한 손보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급여력비율(RBC) 기준과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위험에 노출된 대상 자산의 규모를 측정할 결과"라며 "잔액 부실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집중도 높은 관리를 해야 하는 자산으로 파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보험사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건설업 대출채권 관리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 대다수 보험사가 건설업 대출채권 규모를 서서히 줄여 나갈 복안이다.

특히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안정성 높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만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올 4분기 들어 당국이 부실 PF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면서 보험사들도 대출 관련 입장을 보수적으로 바꾸는 모습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당국의 부실 PF 관리와 함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규모 확대보다는 절차를 강화해 안정성 높은 투자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미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여신심사 강화 조치와 함께 주택경기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PF 대출 등 건설업 관련 여신을 줄이기로 했다.

은행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건설업 여신 비중이 현재보다 평균 0.4%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안재용 기자



LH 전북본부 26일 입주인 자녀 17명에게 총 1,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LH 전북본부, 입주인 자녀 17명에게 장학금 지원

LH 전북본부는 26일 LH 임대주택 입주인 자녀 17명에게 총 1,700만원의 장학금(생활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LH 임대주택 거주 입주인 자녀가 학업에 전념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LH에서는 2012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올해까지 총 1,075명의 학생에게 총 13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LH는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임대주택 입주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학금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디지털 도서관, 어린이 급식지원 등 다양한 생활지원사업

을 추진 중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에만 그치지 않고, 입주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민간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를 발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LH 전북본부는 도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임대 3만3,000호, 매입임대 7,000호, 전세임대 6,000호 등 임대주택 4만6,000호를 공급·관리하고 있으며, 연내에 전북지역 최초의 행복주택인 익산인화 행복주택 612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식량자원 활용 6차산업화 성공모델 찾다

농진청, 6차산업 경영체 우수사례 제작·보급

농진청은 식량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경영체를 육성하고 경영체에 대한 성공모델 스토리를 다룬 '식량자원 6차산업화 우수사례'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식량자원 6차산업화 우수사례'는 6차산업 경영체에 대한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 변화 등의 결과를 토대로 벼, 잡곡, 콩류, 유지작물, 감자류, 보리류 등 6개 분야를 담았다.

경영체 현황소개, 주요 사업내용, 기술투입 및 지원 내용, 매출액 변화, 6차산업 추진 성과, 성공요인,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수록했다.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물론 6차산업을 시작하는 경영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례집은 농촌진흥기관, 관련 경영체에 배부해 우수사례를 다른 경영체에 전하면서 새로운 6차산업 모델을 창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농진청의 식량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경영체 육성은 2014년부터 시작했으며, 올해 6차산업화를 추진 중인 30경영체를 대상으로 품종 도입

과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했다.

또한 경영체 간 정보를 공유·소통하기 위해 식량자원 6차산업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밴드 운영과 월간 소식지 제공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기술 및 유통에 대응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15년 대비 6차산업 추진 성과로 매출액은 11.4%, 일자리는 80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식량자원 6차산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과 컨설팅 추진으로 현장의 대표적인 병목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더 나아가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6차산업 기술지원단을 운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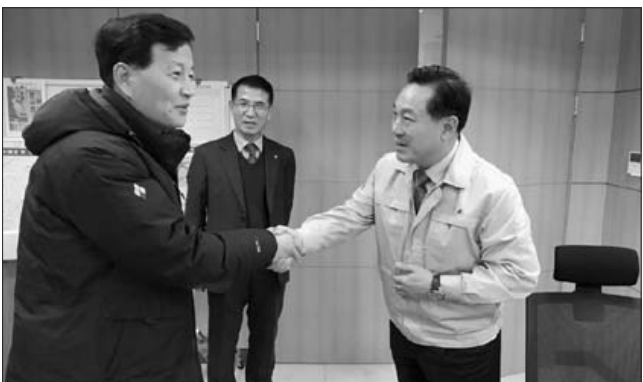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하고 가공과 마케팅에 초점을 둔 기술지원으로 낫쌀과 잡곡류의 소비 촉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우리 식량자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관하는 수출 선도 경영체를 발굴·육성하고 검역·통관 등 수출상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 컨설팅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수출 경영체 협의회를 개최해 소통·공감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유승오 기술지원과장은 "쌀 관세화 및 FTA 체결 따른 우리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식량자원 6차산업화의 실현은 중요한 열쇠"라며, "우리 농촌에 있는 많은 자원 그리고 식량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면 새로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부안 시 방역현장 방문 박태석 농협은행 상무가 26일 부안지역 시 방역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한은 전북본부, 장수읍 거주 다문화가정 30여명 초청 견학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26일 장수읍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30여명을 초청해 경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은행의 기능과 역할 등 경제교육, '화폐 속의 패션' 전시관 관람, 전북본부 영업장 및 시설 견학, 전문문화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경제교육 채널 및 초청행사를 통해 도민들의 건전한 경제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LX공사 감사실, 성금 전달

지난 9일 내부감사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LX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이 지역에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LX공사 이문수 감사는 26일 오후 전주연탄은행을 찾아 사랑의 성금 23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LX공사 감사와 감사실 직원들이 1년 동안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실천해 정성껏 마련된 기금이다.

이문수 감사는 "큰 돈은 아니지만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이 이뤄지도록 감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은행-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 'JB 체인지업론' 인기

150여명에 20억여원 대출... 금리 연 11% 적용

일용직 건설근로자 A씨(30대)는 대출이 필요해도 낮은 신용등급과 소득이 일정치 않아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은 꿈도 못 꿴다.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는 대출할 수 없는 신용등급 7등급이었던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2곳에서 총 1,000만원 대출을 받았다.

A씨가 연간에 내는 이자만 해도 270만원(연간 27% 금리)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JB체인지업론'을 알게 된 A씨는 별도 방문이나 구비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 뱅킹만으로 대출상품을 알아봤다.

A씨는 "JB체인지업론 대출상품을 알아보고 나서는 110만원의 이자만 내게 됐다"며 "연11% 수준의 금리로 기존보다 160만원의 이자가 감소한 셈이어서 가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북은행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정부3.0 방식 민간 협업을 통한 정부의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건설근로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출상품을 최초로 개발·출시해 공공기관과 민간 은행의 우수협업 사례로 주목 받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체인지업론' 출시 이래 12월 현재까지 150여명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해 총 20억원의 대출이 실행됐고, 1인당 평균 11%의 금리를 적용해 이자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양 기관 관계자는 "근로자 입장에서 고금리 대출을 제1금융권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환을 해주는 체인지업론은 근로자의 가계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건설근로자의 수요에 맞는 새로운 상품을 추가로 개발해 건설근로자의 금융생활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